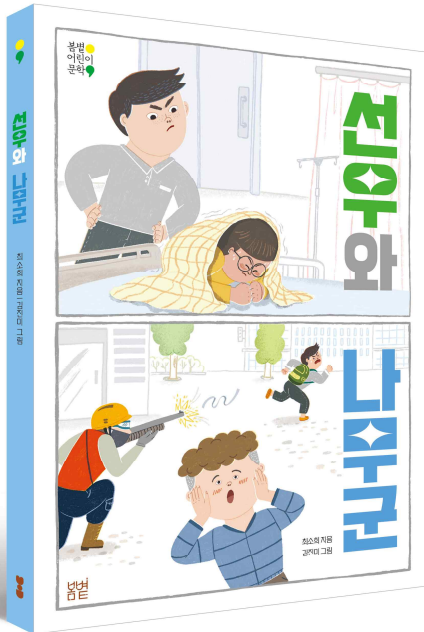




선우와 나무꾼



장난이 조금 지나쳤을 뿐인데 전학까지 가게 된 것이 억울한 친구는 어떻게든 선우를 잘 구슬려 원래 학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선우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어 고라니가 시키는 대로 금방 전학 온 친구의 점퍼를 숨겨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선녀와 나무꾼》을 큰 열개로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동화다.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하며 잘못을 했을 경우 책임감 있게 문제를 수습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유머러스하게 짚어 준다.

최소희 글 김진미 그림

- | | |
|-----------------|--|
| 주제 | 인물의 입장이 되어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기 |
| 권장 차시 | 10차시 |
| 대상 학년 | 5~6학년 |
| 관련 주제어 | 친구, 선녀와 나무꾼, 용서와 사과, 뉘우침, 장난과 폭력, 학교폭력, 책임과 반성, 소원 |
| 교육 과정 연계 | <p>국어</p> <p>[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p> <p>[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p> <p>[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p> <p>도덕</p> <p>[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p> <p>창의적체험활동_학교폭력예방활동, 친구사랑교육활동</p> |
| 작성 |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선녀와 나무꾼을 다시 해석한다면?

《선녀와 나무꾼》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이다. 한국 설화 중 상당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라 만화,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구현되었다. 이야기는 간단하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시대를 거쳐 오면서 《선녀와 나무꾼》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야기되었다. 몇 십 년 전에는 사슴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선녀와 결혼할 수 있게 된 나무꾼의 선행이 강조되었다. 흥부가 제비를 구해 주고받은 보답처럼 말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날개옷을 ‘흠친’ 나무꾼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선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가 정당할까? 이처럼 요즘 시대에 맞는 주제의식을 담은 새로운 질문을 한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무균이가 학교 가는 길에 우연히 고라니를 구해 줬는데, 고라니가 글썽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무균이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친구는 친구 선우와 잘 어울려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친구가 선우를 괴롭혔다고 한다. 친구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 학습 목표

-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성격을 짐작하고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다.
-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이 책은 교실에서 다양한 면으로 활용하기에 좋다.

옛이야기 ‘선녀와 나무꾼’을 새롭게 해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날개옷을 도둑맞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선녀의 딱한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보고 옷을 숨긴 나무꾼의 행동이 정당한가에 대해 따져 볼 수 있다. 이는 친숙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 더 나아가 다른 옛이야기 또는 아이들의 삶 속에서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탐색해 보기에 좋을 것이다. 도덕과와 친구사랑 및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한 활동도 어울린다. 무균이가 4학년 때 의도치 않게 반 친구들을 불편하게 했던 일, 친구가 선우를 괴롭혔던 사건과 거짓 사과 등은 학교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다. 등장인물의 입장에 서서 나라면 기분이 어떨지,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고 장난과 폭력, 사과와 뉘우침, 용서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성격을 짐작해 보고, 등장인물을 인터뷰하는 활동이 어울린다. 또한, 책 내용에서 연결되는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대본으로 쓰고 역할극으로 표현해도 좋겠다.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바람직한 친구 관계를 이해하고 사과와 용서의 의미를 알길 바란다. 나아가 존중과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겠다.

수업 준비물 색연필, 색사인펜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이야기 나누기 - 내용 예상하기	3차시
	함께 읽기 내용 파악하기	
읽는 중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생각 주고받기	2차시
	<선녀와 나무꾼>과 비교하기	1차시
읽은 후	등장인물 탐구하기	1차시
	역할극 하기	2차시
	긍정의 꼬리표 붙이기	1차시

읽기 전

1. 표지 살펴보기

■ 제목과 표지 그림으로 이야기 나누기

- 제목은 무엇인가요?
- 제목을 보니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 '선녀와 나무꾼' 옛이야기가 떠올라요.
-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 누가 등장할 하나요? 어떤 내용인가요?
Tip. 먼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표지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남자아이가 여럿 보여요.
총을 든 사람이 아이를 겨냥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병원에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벌벌 떨고 있고 다른 아이는 심술궂은 표정이에요.

■ 내용 예상하기

- 차례를 살펴봅시다.

- 누가 등장할까요? 등장인물을 예상해 봅시다.

예) 나무꾼, 고라니, 진우, 선우, 선녀

- 어떤 내용일까요?

예) '나무꾼'과 '은혜 깊은 고라니'가 나오는 걸 보니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바꾸어 쓴 동화 같아요.
 친구와 선우가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읽는 중

1. 함께 읽기

■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 소리 내어 책을 읽어봅시다.
-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책을 읽어봅시다.

Tip.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소리 내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소리 내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소리 내어 책을 읽을 때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모둠과 모둠으로 번갈아 읽기를 할 수도 있고, 짝끼리 또는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읽기를 할 수 있다. 한 번 읽을 분량은 한 문장, 한 문단,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읽고 싶은 만큼 등 변화를 주어 읽을 수 있다. 대화가 많은 글은 역할을 정해 읽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어보자.

2.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무균이는 고라니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나요?
 예) 단짝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 고라니는 무균이에게 어떤 비법을 말했나요?
 예) 새로 전학 온 아이의 점퍼를 숨기라고 했어요.
- 고라니의 당숙인 사슴 아저씨가 누구라고 했나요?
 예)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사슴
- 무균이는 왜 점퍼를 숨겨 단짝 친구 사귀는 일을 포기했나요?
 예) 친구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 고라니는 무균이가 숨겨둔 점퍼를 어디로 옮겨두었나요?
 예) 사물함
- 무균이는 친구에게 점퍼를 돌려주며 어떤 말로 사과했나요?
 예)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어서 미안해. 전학 첫날부터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용서해도 미안하고 용서 안 해도 미안해. 평생 오늘 일을 잊지 않을게. 너한테 계속 미안해하며 살게.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 친구는 전학 오기 전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예) 장난이라면서 선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바지를 내려서 선우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 친구는 선우와의 일로 상담을 받고 야단을 맞으며 힘든 일이 있자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 다 선우 때문이라고, 별일 아닌 일을 큰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친구는 전학 결정이 내려지자 어떻게 선우를 또 괴롭혔나요?
 예) 선우가 입원한 병실에 찾아가고 문자와 전화로 계속 전학 취소해 달란 말을 해달라고 졸랐어요.
- 친구 것인 줄 알고 무균이가 숨겼던 주황색 점퍼는 사실 누구의 것이었나요?
 예) 선우의 점퍼였어요.
- 친구는 점퍼를 들고 선우를 찾아가 어떤 방법으로 사과하려고 했나요?
 예) 귀에 딱지가 앉도록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기
- 사냥꾼이 고라니 엉덩이에 총을 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긴 꼬리 끈이 엉덩이에 붙었어요.
- 사냥꾼이 총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예) 친구를 괴롭힌 아이에게 매다는 꼬리표가 나와요.
- 고라니는 사실 누구였나요?
 예) 사냥꾼을 꼬드겨서 선녀 옷을 훔치게 한 사슴
- 무균이가 사슴은 나무꾼을 장가가게 해 주었는데 선녀를 괴롭게 만든 건 아니라고 하자 사냥꾼은 뭐라고 말했나요?
 예) 선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원치 않은 희생으로 만든 행복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 사냥꾼은 친구의 꼬리표가 언제 사라진다고 했나요?
 예)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해서 용서받으면 꼬리표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선우가 용서하면 꼬리표가 떨어져요.
- 사냥꾼은 무균이에게 어떤 숙제를 주었나요?
 예) 친구가 제대로 반성하게 도와주기, 선우가 얼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 고라니 사냥꾼은 누구였나요?
 예)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예요.

3.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인상적인 장면을 찾아 이야기해 봅시다.
 예) 고라니 사냥꾼의 정체가 선녀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냥꾼의 총에서 꼬리표가 나오고, 그게 엉덩이에 붙는 게 신기했어요.

■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 나누기

-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을 골라 봅시다. 그 문장을 고른 까닭도 이야기해 봅시다.

예) (65쪽) ‘오늘 못 한 사과는 내일 마저 해야지.’

→ 친구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사과하려는 선우의 착한 마음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103쪽) 친구가 보기에 무균이의 사과는 진짜 미안해서 하는 사과였다.

→ 무균이의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친구에게 닿은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126쪽) 이 총은 친구를 괴롭힌 아이에게 매다는 꼬리표가 나오는 총이란다.

→ ‘꼬리표를 달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내릴 때 들어본 표현인데 꼬리표가 나오는 총을 생각한 게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ip. 붙임 종이에 써서 전체 공유해도 좋다.

■ 소감 나누기

- 책을 읽은 소감을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예) 어렸을 때 읽은 ‘선녀와 나무꾼’을 선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배울 점이 있었어요.

무균이가 장난치는 모습이 좀 심하긴 해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림이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을 잘 표현해서 재미있었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어요.

3. 생각 주고받기

■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이 바뀐 선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여러분은 친구의 점퍼를 잠시 숨기는 건 장난이라고 생각하나요?
- 친구가 선우에게 했던 화장실 놀이, 실내화 축구, 바지 내리기는 장난인가요?
- 장난과 괴롭힘은 어떻게 다른가요?
- ‘꼬리표를 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친구와 선우의 같은 반 친구들은 친구가 선우를 괴롭히는 걸 봤을 텐데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용서해야 하나요? 사과와 용서의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12~113쪽)

현경이가 선우를 돌아보았다.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현경이 뒤로 더 바짝 숨었다.

“선우는 아직 사이 좋게 지낼 준비가 안 됐다는데.”

“준비? 사이 좋게 지내는 데도 준비가 필요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럼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것 아냐?”

(중략)

“정말 미안, 하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주민이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말했다.

“시간과 마음이 더 필요해 보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네가 잘 생각해 봐. 우리한테 묻지 말고.”

예) -사과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칠 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선우의 마음이에요. 누가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할 수 없어요. 친구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말을 해도 친구에서 진실함을 느낄 수 없다면 선우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친구가 선우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과 선우의 상처받은 마음은 미안하다는 말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생긴 억울한 감정이나 불안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예요. 책에 있는 표현처럼 마음의 딱지가 떨어져 친구와 잘 지내려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 만약 나라면

- 만약 내가 무군이라면, 새로 전학 온 친구의 점퍼를 잠시 숨겼을까요?
 - 만약 내가 선우처럼 지속적으로 친구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 만약 우리 반에 괴롭힘을 당하는 선우와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 예) 모르는 체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우리 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친구에게 선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뻔뻔함을 보니 친구들이 말해도 별로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장난이라면서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선우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말을 하던지 아니면 글을 써서 알릴 것 같아요.

Tip. ‘생각 주고받기’와 ‘만약 나라면’ 활동은 아이들 주도로 질문을 생성하면 좋다. 처음에는 교사가 예시 질문으로 이끈 뒤 학생들이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읽은 후

1. <선녀와 나무꾼>과 비교하기

■ 옛이야기 ‘선녀와 나무꾼’과 비교하기

- 비슷한 점을 찾아봅시다.
- 예) 등장인물과 옷을 훔쳤다는 사건이 비슷해요.

	선우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등장인물	단짝친구 사귀기가 소원인 나무꾼	장가 들고싶은 나무꾼
	점퍼를 빼앗긴 선우	옷을 빼앗긴 선녀
	고라니	사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예)

	선우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배경	어제이거나 오늘이거나 내일인 요즘 어느 날	옛날 옛적
	어느 도시	깊고 깊은 산속
인물 사건	나무꾼은 친구(선우)의 점퍼를 숨긴다.	나무꾼은 선녀의 날개옷을 숨긴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마음을 다해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빈다.	나무꾼은 자기가 무얼 잘못했는지 끝까지 모른다.
	선녀가 고라니 사냥꾼으로 등장해서 고라니와 친구에게 꼬리표 벌을 준다.	선녀는 나무꾼과 사슴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Tip. 옛이야기 ‘선녀와 나무꾼’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한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사가 한 번 읽어준다면 두 작품을 비교하기 훨씬 수월하다.

2. 등장인물 탐구하기

■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등장인물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짐작해 봅시다.

예)

등장인물	인물이 했던 말이나 행동	짐작되는 성격
나무꾼	-소풍 때 윤주의 도시락에 먼저 손대는 장면 -최고의 칭찬이라면서 민경이에게 진짜 똥으로 그린 그림이냐고 말하는 장면	눈치가 없는 편이다.
	-나무꾼이 친구 점퍼를 숨겼다고 말해도 친구들이 믿지 않는 장면	착하다.
	-점퍼를 자신이 숨겼다고 말하는 장면	정직하다.
	-친구에게 점퍼를 숨겨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하고 우는 모습	마음이 여리다.
선우	-화장실에 갇혀서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모습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장면	내성적이다.
친구	-선우를 괴롭히면서 화장실 놀이라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선우를 보고 웃겨서 배꼽을 잡고 구르느라 미안하다는 말도 못 했다는 장면 -선우 병실로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로 계속 선우를 괴롭히는 행동 -‘선우가 별별 떠다니? 왜? 우리가 뭘 어쨌는데?’ -‘미안해. 용서해 줘. 우리 전학 취소해 달라고 한마디만 해 줘.’ -‘내가 잘 지내보려 했는데 계획 수정이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얼마 나 센 사람인지 보여 주고야 말겠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뻔뻔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 탓을 한다.
고라니	-“흠,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상을 받아야지, 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불쌍한 나무꾼을 구제해 뒀더니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해요?”	뻔뻔하다. 심술궂다.
사냥꾼	-친구를 괴롭힌 아이들에게 꼬리표를 다는 일을 하는 것 -“사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사슴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겠다면 내가 사과를 받아 내자고 결심했지.”	정의롭다. 용감하다. 결단력이 있다.

- 나와 비슷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 내 주변 사람 중 등장인물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 등장인물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등장인물 인터뷰하기

-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 등을 써 봅시다.
- 등장인물을 초대해 인터뷰해 봅시다. 초대된 사람은 그 등장인물이 되어 친구들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면 됩니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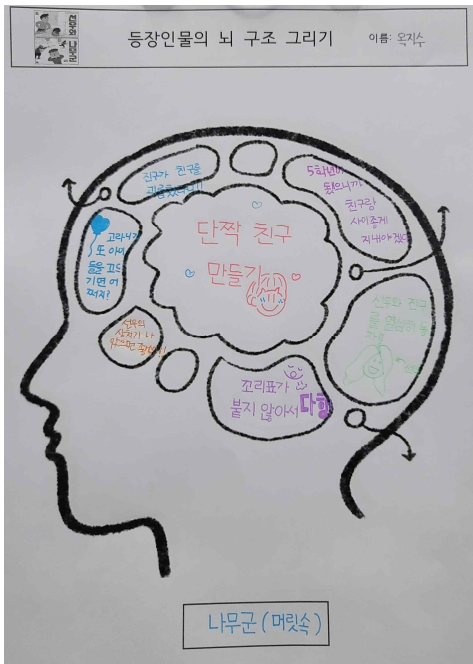
등장인물	질문	예상되는 대답
나무꾼	친구의 점퍼를 숨길 때 죄책감이 들지 않았나요?	점퍼를 숨길 때는 오직 단짝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쁨과 곧 돌려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선우	왜 선생님과 부모님께 친구가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친구가 계속 장난이라고 말해서 참았어요.
친구	선우와 입장을 바꿔, 친구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창피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기분 나쁘겠죠.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고라니	아직도 나무꾼더러 선녀의 옷을 숨기게 한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 일은 나무꾼을 위한 제 배려였어요.
사냥꾼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나쁜 어린이 꼬리표를 붙였나요?	글쎄요.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에게 꼬리표를 붙였어요.

■ 등장인물의 뇌 구조 그리기

- 등장인물을 탐색했던 내용을 인물의 뇌 구조 그리기로 표현해 봅시다.

예) 나무꾼의 뇌 구조 그리기



<예>

[나무꾼의 머릿 속 표현]

1. 뇌의 가장 큰 부분: 단짝 친구 만들기
2. 5학년이 됐으니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3. 꼬리표가 붙지 않아서 다행이다.
4. 선우와 친구를 열심히 돕자.
5. 고라니가 또 아이들을 꼬드기면 어쩌지?
6. 친구가 친구를 괴롭혔다니!(실망이야.)
7. 선우의 (마음속)상처가 나았으면 좋겠다.

3. 역할극하기

■ 비슷한 경험 떠올리기

- 일상에서 겪은 친구 사이의 갈등과 해결, 장난과 괴롭힘, 사과와 용서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내가 본 것, 들은 것, 책에서 읽은 내용 등도 떠올려 봅시다.
-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역할극 대본 쓰기

- 어떤 상황을 역할극으로 표현할까요?

예) 짝이 새로 산 색연필, 마커, 볼펜 등 학용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데 안 빌려주면 욕심 많다고 말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빌려주는데 나중에는 짝이 옷이나 가방, 돈까지 빌려달라고 해요. 못 빌려준다고 말하니 다

른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니며 이간질을 하는 상황이에요.

-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교실’, ‘바른 친구 관계’ 등을 주제로 역할극 대본을 써 봅시다.
- 극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물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의합니다.

■ 역할극하기

- 역할극을 연습해 봅시다.
-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역할극을 해 봅시다.
- 역할극을 본 소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tip. 학급 상황에 따라 짝 또는 모둠 활동으로 진행한다.

차시를 충분히 확보하고 소품 등을 준비하여 연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4. 긍정의 꼬리표 붙이기

■ 나쁜 어린이 꼬리표 떼고 긍정의 꼬리표 붙이기

- 혹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달고 있는 나쁜 어린이 꼬리표가 있나요? 나쁜 꼬리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나의 좋은 점을 찾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에게 긍정의 꼬리표를 선물해 봅시다.
 예) 종이 상자와 털실을 재활용해 만든 긍정의 꼬리표 만들기



[예]

난 웃음이 예뻐!
 난 항상 당당해!
 난 노래를 잘해!
 그래서 난 내가 좋아!

난 나를 사랑해.
 난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들도 존중할거야.

Tip. 긍정의 꼬리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책 속 꼬리표처럼 긴 종이에 써서 친구의 등에 붙여준다. 대상을 학급 전체로 한다면 ‘긍정의 우리 반 꼬리표 이어가기 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급과 건강한 친구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글을 써서 학급 게시판에 붙여나간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 학급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긍정의 꼬리표를 표현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따로 친구사랑교육주간에 활용해도 좋다.